스위스 도심 근교 설국 하이킹.

멀리 가지 않아도, 숙소에서 가까운 윈터 하이킹

겨울에 찾은 스위스 도시
그 근처에 펼쳐진 마법 같은 겨울 풍경
그 소복한 풍경 사이로 한걸음 한걸음
나, 눈꽃 한복판에 발자국 냈다
스위스 도시랑 정말 가까운 자연

스위스에는 겨울이 관광 성수기인 지역이 있다. 바로, 전 세계 스키 인파가 몰려드는 알프스 산속 마을이다. 반면, 비수기로 접어든 스위스 도시에는 눈송이와 함께 차분함이 내려앉는다. 스위스 도시들은 겨울을 맞이하며 여행자는 물론 그 안에서 생활하는 현지인에게 설렘을 가져다줄 만큼 낭만적인 모습으로 단장한다. 알프스의 소복한 눈꽃 대신 매혹적인 불빛으로 도시 구석구석을 치장한다.

그래도 스위스까지 왔는데, 설국 풍경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많이 아쉽다. 도심에서 멀리 벗어날 형편이 못 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스위스 도시 근처에는 화려한 풍경을 품은 자연이 드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눈 덮인 동화 속 겨울 풍경을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다 보면, 지친 몸도 마음도 맑게 맑게 정화되는 기분이다. 스위스 가족들도 주말이 되면 따뜻하게 채비를 하고 겨울 하이킹을 나선다.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스노우슈 투어를 도시 근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중교통으로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찾아갈 정도다.

새하얀 융단 위로 펼쳐진 새파란 하늘, 그 한복판에 앉아 호호 불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1. 루체른(Luzern)
루체른보다 더 평화로운 겨울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민들과 숍 주인들, 사업가들은 서로의 이름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들에게 겨울은 특히 더 가족같이 따사로운 계절이다.

기차역에서 내려 바로 옆에 있는 문화 컨벤션 센터, 카카엘(KKL: Culture and Convention Centre)로 들어가 보면 좋다.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디자인한 것으로, 도시를 빛내는 건축물 중 하나다. 카카엘 안에 자리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나 음료를 즐기다가 밖을 내다보면 운치 있는 루체른의 겨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카카엘을 나와 구시가지 쪽으로 향해 걷는다. 박공지붕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중세 다리, 카펠교(Chapel Bridge)는 루체른의 상징이 되었는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 달린 목조 다리 중 하나다. 원형 그대로 보존된 성곽, 무제크마우어(Museggmauer)을 따라 거닐며 눈 덮인 지붕으로 가득한 구시가지의 파노라마를 한가득 담아보아도 좋다.

1-1. 필라투스(Pilatus) 윈터 하이킹
크리스마스카드에 등장하는 새하얗게 눈 덮인 전나무 숲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다. 눈밭에 발이 푹푹 빠지는 그 놀라운 풍경 속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스노우슈(Snowshoe)다. 눈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고안된 넓적한 신발을 신고 눈 위를 걷는 액티비티다. 루체른(Luzern)에서 멀지 않은 알프스 산, 필라투스에는 스위스 겨울 왕국을 건널 수 있는 스노우슈 코스가 있다. 프래크뮌텍(Fräkmüntegg)에서 출발해 널찍한 알프 보네른(Alp Bonern) 들판을 건너 레흘뢰허(Rehlöcher) 숲을 통과하는 코스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하이킹 중에 루체른 칸톤에서 니드발덴(Nidwalden) 칸톤의 경계를 넘게 되는데, 루체른과 루체른 호수, 중간지대와 알프스의 북쪽 산사면을 감상할 수 있다.

크리엔스(Kriens) 계곡 역에서 파노라마 곤돌라를 타면 프래크뮌텍 역(1,416m)까지 30 분 내에 쉽게 오를 수 있다. 루체른 시내 위로 우뚝 솟은 필라투스로 향하는 중간역 프래크뮌텍에서 시작되는 이 스노우슈 하이킹 코스는 처음에는 완만한 오르막으로 시작한다.

라우엘렌엑(Lauelenegg) 방향으로 난 가벼운 숲을 통과하고 나면 약 1.3km 의 내리막이 이어지는데,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난 공터를 지난다. 반 정도에 다다르면 알프 보네렌 오두막이 등장한다. 공터의 끝자락에서 북동쪽으로 난 길이 있는데, 레흘뢰허와 뮐리매스(Mülimäs)를 지나 프래크뮌텍 곤돌라 역으로 돌아오는 도로로 이어진다. 곤돌라 루트를 건너 조금 올라가면 오른 편으로 프래크뮌텍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썰매 언덕 구간을 따라 걷게 된다.

지형은 꽤 평탄허며 경사로 25° 이내의 완만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근방에 가파른 언덕이 없고,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도 없다. 온 가족이 나서기 좋은 여유로운 구간이다.

3km 의 거리이며, 2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쉬운 난이도의 코스다. 트레일의 마지막에서는 레스토랑 프래크뮌텍(Restaurant Fräkmüntegg)으로 향해 핫 초콜릿이나 커피를 마시며 여정을 마무리하기 좋다.

찾아가는 법: 루체른 기차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크리엔스(Kriens)까지 간 뒤, 필라투스 곤돌라를 타면 크리엔저엑과 프래크뮌텍까지 쉽게 오를 수 있다.

1-2. 슈토스(Stoos) 윈터 하이킹

발트휘틀리(Waldhüttli) 스노우슈 트레일은 분주한 겨울 스포츠 리조트에서 외딴 은둔지로 단숨에 그 풍경을 바꿔 버린다. 투어의 가장 높은 지점에는 숨겨진 보석인 아늑한 발트휘틀리 마운틴 펍이 있다.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 산악 마을, 슈토스는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퓨니큘러를 타고 오르게 된다. 이 정류장에서 트레일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분주한 마을 정취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이어진다. 이 자연 한복판을 걷노라면 이 세상이, 이 마법 같은 설국이 모두 내 것만 같다. 짧고 가파른 오르막을 지나면 이 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다다르는데, 시골스러운 발트휘틀리 마운틴 펍이 기다리고 있다. 겨울에만 운영하는 특별한 명소다.

슈토스 마을과 슈비츠(Schwyz) 지역, 클라이너 미텐(Kleiner Mythen), 그로써 미텐(Grosser Mythen) 봉우리를 충분히 감상하고 난 뒤에는 클링엔슈톡(Klingenstock) 체어리프트 역으로 내려오면 된다. 내리막이 꽤 가파르지만, 처음에만 그렇다. 체어리프트가 등장하면 트레일의 종착지다. 그래도 더 걷고 싶다면 마을까지 계속 걸어 내려갈 수 있다.

약 3 시간 30 분이 걸리는 코스다.

찾아가는 법: 루체른에서 기차를 타고 슈비츠(Schwyz)에서 내린다. 버스를 타고 슈비츠에 있는 슈토스 퓨니큘러역까지 가서, 슈토스로 올라갈 수 있다. 약 2 시간이 소요된다.

2. 취리히(Zürich)

취리히에 눈이 쌓이면 이 다채롭고 활기찬 도시 위로 정적이 내려앉는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거리를 거니는 취리히 시민들은 이 고요를 한껏 즐기는 표정이다. 새하얀 베일을 쓴 듯한 교회 첨탑들도 취리히 야경을 빛내 준다.

취리히 구시가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감성이 충만해진다. 취리히 중앙역 뒤쪽으로 나오면 좁다란 구시가지 거리, 니더도르프(Niederdorf)가 있다. 취리히 사람들이 "되르플리(Dörfli)"라 부르는 "작은 마을"이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골목은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더욱 한적하다. 작은 부티크들과 고서점, 공예품 스튜디오가 모여있는 곳으로 낮에도 밤에도 볼거리가 가득하다. 취리히의 역사와 건축, 쇼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취리히를 돌아보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어준다.

니더도르프 끝에서 리마트(Limmat) 강변으로 나가면 반대편으로 프라우뮌스터(Fraumünster)의 첨탑이 눈에 들어온다. 취리히를 상징하는 첨탑, 프라우뮌스터의 시간에 맞춰 울리는 종소리가 취리히를 더욱 고풍스럽게 한다. 853 년 동 프랑크 왕국의 루드비히 2 세가 딸을 위해 세운 수녀원으로, 종교 개혁을 거쳐 현재는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13 세기경 재건된 고딕 양식 교회 내부에는 파이프 오르간과 아우구스트 자코메티, 마크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답게 빛난다.

프라우뮌스터와 마주하고 있는 쌍둥이 첨탑의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는 취리히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로마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12 세기 조각이 인상적이다. 내부에는 아우구스트 자코메티가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다. 탑에 오르면 멀리까지 펼쳐진 겨울 도시를 조망할 수 있다.

린덴호프(Lindenhof)도 취리히의 빼놓을 수 없는 전망대다. 취리히 구시가 중간 언덕 위에 자리한 광장으로, 리마트(Limmat) 강을 따라 이어지는 취리히의 구시가지를 감상할 수 있다.

취리히 호반을 따라 걸으며 로컬들과 인사를 나눠봐도 좋다. 취리히 호반을 따라 펼쳐지는 지역에는 세계적인 부호들이 거주하는 호화로운 저택이 펼쳐진다. 잘 보존된 호반의 풍경이나 다채로운 레스토랑, 수수한 바, 최고의 와인셀러 등은 걷는 도중에 마주치는 보너스다. 10 곳의 출발점이 있으니 한곳을 골라 걷기를 시작해 보자. 호반 루트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해놓고 걷는 것이 아닌, 자유롭고 여유롭게 걷는 자체를 만끽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걷기와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취리히 리마트 강변도 좋은 겨울 산책 코스다. 취리히 시내를 가로지르는 리마트 강변을 따라 거닐어 취리히 호수까지 가는 길은 야경이 무척 근사하다. 어둠이 깔리며 하나둘 켜지는 조명을 바라보며, 야외 바에서 맥주나 와인을 즐기는 취리히 사람들과 어울려 볼 수도 있다.

라텐(Raten) 트레일

축(Zug) 주의 가장 높은 스노우슈 트레일에 있는 애거리탈(Ägerital) 계곡 위 높은 곳에서 낭만적인 겨울을 만나보자. 눈 덮인 숲을 가로지르고, 중앙 스위스 알프스에서 샌티스(Säntis)를 마주할 수 있다.

라텐(Raten)-고트샬켄베르크(Gottschalkenberg) 스노우슈 트레일의 시작점은 해발 1077m 의 라텐 레스토랑 맞은편에 있다.
트레일은 드넓은 초원과 들판, 완만하게 구불구불한 지형, 그리고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을 통과한다. 첫 번째 구간은 비교적 평평하고 걷기 쉬우며 아름다운 산 풍경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다. 리기(Rigi)와 그 뒤에 있는 필라투스(Pilatus)가 함께 펼쳐진다. 남쪽으로는 저 멀리

포근하게 눈 융단으로 뒤덮인 우르너 알프스(Urner Alps)를 볼 수 있으며, 동으로는 샌티스와 슈페어(Speer)가 우뚝 솟아 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오르막과 방향 변화가 더 많아 다소 까다롭다. 눈 덮인 소나무와 여러 나무가 이루는 숲을 지난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 덕분에 힘들다는 생각이 잊힌다. 짧게 숨을 내쉬는 동안 깨끗하게 눈 덮인 풍경의 고요함을 즐기고 신선한 산 공기를 실컷 들이 마실 수 있다.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면 고트샬켄베르크 레스토랑 앞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곳에서 벨뷰(Bellevue)로 조금만 돌아가면 취리히 호수의 웅장한 전망과 마이칭엔(Menzingen)의 빙퇴석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다음 반대 방향으로 돌아 다시 라텐의 시작 지점으로 향한다. 먼저 침엽수와 혼합 숲을 통과하고 설원을 가로지르며 다시 한번 우리(Uri)와 글라루스 알프스(Glarus Alps)의 웅장한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저녁 빛에 특히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약 2 시간이 소요된다.

찾아가는 법: 먼저, 취리히에서 기차로 축(Zug)까지 가면 오버래게리(Oberägeri)로 향하는 버스를 탈 수 있다. 오버래게리 마을에서 다시 한번 버스를 타면 라텐 레스토랑 앞까지 간다. 총 1 시간 15 분이면 된다.

3. 베른(Bern)

겨울밤이면 베른의 구시가지는 고요한 정적에 휩싸인다. 아레(Aare) 강의 촉촉한 공기와 독특한 향기가 더해져 베른 구시가지 골목골목을 메운다. 베른 구시가지의 6km 아케이드를 따라 따뜻한 조명이 뻗어나간다. 시계탑과 대성당의 조명이 밤 풍경을 위엄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의 구역에는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는 곳이 하나씩은 있는데, 걷다가 쉬어가며 베른의 여러 구역을 만나보는 재미가 있다. 먼저, 기차역 뒤쪽에 자리한 랭가쎄(Länggasse)로 향한다. 다정한 골목에 자리한 카페 압펠골드(Café Apfelgold)에서는 진득한 초콜릿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 로라이네(Lorraine) 다리를 건너면 같은 이름의 구역이 나오는데, 자그마한 유기농 숍, 큐 라덴(Q-Laden)에서 향미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이제 베른 구시가지를 돌아나가는 아레강을 따라 낭만 산책을 즐겨볼 시간이다. 키르헨펠트(Kirchenfeld) 구역 근처에 있는 몽비쥬(Monbijou) 다리로 방향을 잡는다. 가는 길에 그는 깨끗한 옥빛 아레 강물과 베른의 뒷동산, 구어텐(Gurten)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골목을 따라 내려가 가슈케셀(Gaskessel) 문화 센터를 지나 마르칠리(Marzili) 구역에 있는 아레 강둑에 다다른다. 레스토랑 마르처(Restaurant Marzer)는 조용한 길에 자리해 국회의사당 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레스토랑이다. 정겨운 식사 후에 마테(Matte) 구역을 지나며 베른 구시가지의 낭만 야경을 담뿍 담아볼 수 있다. 언덕 위에 자리해 베른 최고의 전망을 선사하는 장미 정원, 로젠가르텐(Rosengarten)도 놓칠 수 없는 장소다.

젤리뷜(Selibühl) 파노라마 트레일

구르니겔(Gurnigel)의 언덕으로 이뤄진 숲은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겨울 풍경을 즐기다 가라고 손짓한다. 젤리뷔엘(Selibüel) 위에서는 웅장한 360 도 파노라마가 고생해 오른 이들을 반겨준다. 눈 덮인 유라(Jura) 산맥과 알프스산맥이 끝없이 펼쳐진다.

베르네제 미텔란트(Bernese Mittelland) 칸톤 위엄 있는 간트리쉬(Gantrisch) 산맥 발치에 구르니겔 지대가 있다. 높이 솟아오른 바위산에 둘러싸인 스노우슈 트레일로, 여름 하이킹 구간을 따라간다. 젤리뷔엘 정상 근처의 숲 능선을 따라 트레일이 일부 이어진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남쪽 산사면을 따라 정상까지 트레일이 이어진다. 풍성한 자연과 함께 환상적인 360 도 파노라마가 줄곧 동행한다. 날씨가 좋으면 툰(Thun) 호수와 아이거(Eiger), 묀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트리오가 시양에 들어오기도 한다. 뉘네넨플뤼(Nünenenflue)와 간트리쉬(Gantrisch) 산이 위엄한 배경을 만들어 준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샤스랄(Chasseral)까지도 보이는데, 베르네제 유라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정상 근처의 산장 식당, 젤리뷜(Selibühl)에서 허기를 달래기 좋다.

슈티렌휘테(Stierenhütte) 및 바서샤이디(Wasserscheidi)의 주차장에서 트레일을 찾을 수 있으며, 바서샤이디 및 구르니겔 산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총 4km 거리의 2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쉬운 난이도의 코스다.

찾아가는 법: 베른에서 기차를 타고 슈바르첸부르크(Schwarzenburg)에서 하차한 뒤, 기차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구르니겔, 슈티렌휘테(Gurnigel, Stierenhütte)에서 하차하면 된다. 총 1 시간 40 분 정도 소요된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